

순창, 청년들 지역 정착 돕는다

농업·중기·문화예술 분야 종사 30명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순창군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순창군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역정착 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역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마련된 이번 사업은 오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1980

년생~2001년생)으로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에 해당되며, 단, 동일유형 지원사업 참여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지원금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기소개서와 지원금 활용계획서 등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12개월 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과 연계해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도박, 복권 등 사행산업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청년들의 사회 활동 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도내로 한정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제한이 없다.

/순창=이양원 기자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

임실군, 연중 실시

임실군은 65세(주민등록기준 1954년 출생)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 위해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20~60% 수준에 이르는 위험한 감염증이다.

이에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인 폐렴구균(PPSV 23) 백신 1회 접종을 실시하면 폐렴구균 감염에 대한 '폐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50~80%정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군 이준백 의료지원과장은 "올해 주민등록상 1954년생 중 미접종자는 무료접종이 가능하니 보건의료원으로 방문해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며 "혹시 보건의료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전국 시·군 보

건소를 방문해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나,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예방접종에 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전 기저질환 여부 확인과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 후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640-317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쌀값 안정 논 타작물 사업 목표 달성 총력

목표 대비 실적 저조... 재배 지원 위해 28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가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의 식량작물의 재배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목표 면적 676ha 대비 326.4ha의 신청비율(48.3%)로 전 북평균 73%, 전국평균 49%로 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7~10월에 실시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기간이 끝난 후 적격 대상농지에 대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쌀 생산조정 단협의회, 식량산업 협의회, 쌀 전업농 연합회와의 간담회 및 한옥우 협회 등 참 독려와 10,000여 농가에 대한 개별 문자, 전년도 3ha 이상 벼 재배 720여 농가에 대한 개별 서한문 발송, 팜플렛 등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 집중 추진해 나갔다.

특히 남원시는 가을철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배정 시 논 타작물 전환실적에 따라 타작물 2ha미만 참여농가 1ha당 65포대 내외, 2ha이상 참여농가 1ha당 75포대 내외를 별도 배정 하는 등 타작물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

브를 적용하고, 남원시 쌀 생산조정 추진단 협의회 결과, 벼 재배면적 3ha 이상 농업인이 타작물 재배 미참여 시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제의를 검토하는 등 패널티도 적용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 지원은 1ha당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 콩 325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휴경은 280만원이 지원되고, 사업희망자는 오는 6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준무 농정과장은 "지난해는 타작물 사업으로 사상 최고의 쌀값이 형성될 수 있어 급년에도 전업농업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목표 면적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나 먼저 동참한다는 입장으로 적극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1일 남원시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남원시민 원탁회의를 시청 강당에서 가졌다.

제8회 남원시민 원탁회의의 성황리

140여명 참여 사계절 농산물 택배 '꾸러미사업' 등 제안

남원시는 지난 1일 남원시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남원시민 원탁회의를 시청 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금까지와 달리 행정의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제안한 의제로 시민의 참여권을 넓혔으며, 시민은 물론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제안은 ▲도시·농촌 상생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생활지원회수 및 재활용품처리 방안 ▲우리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 ▲남원의 문화유산, 생태관광 자원유지 전승 방안 ▲마을교육생태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남원이 여성친화도시로서 나아가길 방향 ▲마을

내 청소년 자율공간 확보방안 ▲구도심 내 청년 공간조성 ▲생활공공대어 공방 설립방안 ▲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등 의제 10개로, 각 테이블별로 나눠 진행되었다.

이날 도시·농촌 상생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의제팀에서는 정기구득을 바탕으로 사계절 농산물 택배 사업인 '꾸러미사업'을 제안했으며, 생활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품 처리 방안 팀은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학교교육 및 읍면동 특강 및 환경교육 전담양성 등의 개선 방안을 내 놓았으며, 개선방안은 시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할 경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시민 귀농학교 과정 마쳐

남원시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차 3일 동안 진행된 2019년 2기 도시민 귀농학교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0명을 대상으로 남원의 농업·역사·문화에 대한 기초이해교육과 귀농귀촌 정책설명, 선배 귀농인 농장탐방 및 현장체험, 소그룹 멘토컨설팅 등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했다.

1일차 귀농귀촌 정책강의를 시작으로 교육생들의 나의 귀농귀촌계획서 발표, 귀농귀촌센터장의 착한 귀농귀

촌 마인드라는 주제로 이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선배귀농인과의 1:1 컨설팅을 통해 귀농 준비단계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경험담과 고민을 공유하며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포교버섯 재배 농가 방문을 시작으로 약도라지, 복숭아, 흑염소 농장을 방문하는 등 특용작물 재배에서 가축 사육까지 다양한 현장 체험을 실시했으며, 오는 6월에도 도시민 초점 농촌체험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여성귀농학교, 발효학교, 산야초학교 등 연중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국립민속국악원, G20 개최 기념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6월 12일 주 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이하 한국문화원)초청으로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6월 28일과 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문예를 통한 민간교류의 확대와 화합을 기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오사카에 울려 퍼진 한일화합의 멜로디 두번째 시리즈'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재 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본부(단장 오용호)와 함께 개최해, G20 및 세계박람회 등을 계기로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오사카와 재일 동포사회와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기악합주, 판소리, 민요, 무용, 는 작품으로, 오사카 관객들에게 한국전통예술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창군, 일품공원 11개 체험존 운영

순창군이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순창읍 일품공원에서 재난상황 발생시 어린이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9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운영하게 됐으며, 올해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된 가운데 순창군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프로그램 참여 연령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로, 별도의 예약이나 사전 신청 없이 체험 당일 현장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순창군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며, 관내 여성단체협의회와 순창군자살예방연합회 회원들도 자원봉사 하기로 했다.

체험 마지막날인 8일인 토요일에는 가족 단위 체험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주변 교통통제와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없는 행사 만들기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체험교실은 일품공원과 장애인 체육관 등 2곳을 활용해 교통안전체험존, 통학차량체험존, 화재대피체험존 등 11개 체험존과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곧 다가올 여름철 수상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방법과, 물에 빠질 경우 대처방법을 체험하는 수상체험존도 마련해 어린이 수상사고율을 낮추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이 화재대피체험존은 아이들과 인솔 교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교사들의 대처능력도 높일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